

■ 특특뉴스

삼성 '웹캠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가 화상 회의에 최적화된 '웹캠(Webcam) 모니터'를 최근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 웹캠 모니터(모델명 S40VA)는 화상 회의용 웹캠 카메라와 마이크가 필요할 때만 꺼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상단에 팝업 형태로 내장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스피커도 탑재돼 있어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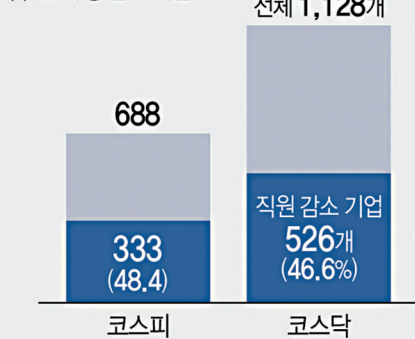
풀HD 해상도와 178도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한 24형 제품으로, 보안성과 눈 건강,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등을 고려해 여러 기능을 갖췄다.

■ 그래픽 경제

직원 감소 상장기업 수

2018~2021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1,816개사 상반기 직원 규모 조사 결과

() : 전체 중 감소 비율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연립뉴스

상반기 상장기업 47.3% 직원 수 줄어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 절반이 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이러한 고용 충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1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1,816개사의 상반기 직원 규모를 조사한 결과 859개사(47.3%)가 작년 동기 대비 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큰 코스피 시장이 직원 축소 규모도 더 컸다.

코스피 상장사는 688개사 중 333개사(48.4%)가, 코스닥 상장사는 1,128개사 중 526개사(46.6%)가 줄었다.

‘주 52시간제’ 도입 두 달 불구 ‘유명무실’

#1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투잡을 뛰는 수밖에요.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주 52시간제 근무 전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더 적죠. 일도 주중엔 본업이 있으니 야간에만 가능한 일을 찾아야 해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자들의 ‘워라벨’을 위해 도입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녁 시간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광산구 월전동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김 모 씨(35)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급여에 어쩔 수 없이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이른바 ‘투잡’을 뛰게 됐다. 근무 시간이 줄었으나, 업무 강도는 심해져 야간 대리기사 일도 벅차지만 어쩔 수 없다.

#2 “오후 7시가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일간은 저녁 10시까지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 추가 수당은 커녕 오히려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 이상 ‘유명무실’한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한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이 모 씨(27)는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큰 차이는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는 “차라리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당당히 추가 수당이라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눈치만 보인다”며 “정책 도입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근무패턴 붕괴·인력 이탈 심화

초과근무 수당 요구조차 눈치

“업종별 구분 적용·보완해야”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임금 보전을 위해 투잡에 뛰어들거나 다른 회사로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 패턴이 무너지는 등 오히려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5일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 4,000명으로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이 중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부업자 수가 중견·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해 확연히 많았다. 올해 7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부업자 수는 전체 부업자 56만 6,000명 중 2만 9,000명으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추가해도 5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해야 할 업무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제한된 탓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해 오히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기도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퇴근은 했으나 남은 업무를 집에 가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오히려 업무 시간은 증가한 것이다. 퇴근을 한 이후 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 4,000명으로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이는 2003년

책이 아니냐,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기업에서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는 다”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재 재직자들에게 돌아온다. 차라리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기록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면 기업 또한 비용 부담에 일하는 시간을 자연스레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계속된 논란에 타임뱅크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관련 정책 보완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정부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보완·개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의 일괄적 적용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예외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완성도 높은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장기근속자 아파트 공급

24일까지 대상자 모집

중기 5년·동일기업 3년

‘남구 진아리채’ 3가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 이하 광주전남중기청)은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남구 진아리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주택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중기청은 광주

시 남구 월산동 36-8번지 일원 총 165세대 규모의 ‘남구 진아리채’ 아파트를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3가구 특별공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추천자 선정은 재직기간, 각종 수상경력, 자격증 등의 가점요소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테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 근로

자는 제외된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해 광주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등 24개 주택에 중소기업 재직자 78명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 특별공급 추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택특별공급 신청·접수 공고시 이를 알리는 문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싶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gwangju/main.do)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한국전력공사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15일 전통시장과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최영호 상임감사위원

추석 맞이 복지시설 사회봉사

한국전력공사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5일 전통시장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최영호 상임감사위원

은 송정매일시장을 방문해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들을 광산구 어등지활센터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가고싶은 옐로우시티
걷고싶은 황룡강